

황선홍호 U-23 아시안컵 오늘 개막



박지영, KPGA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정상 박지영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에서 통산 8번째 우승을 거머쥐었다. 박지영은 14일 인천 중구 클럽72 하늘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 보기 1개를 쳐 5언더파 6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를 친 박지영은 정은지를 6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뉴스

윤상필, KPGA 개막전서 생애 첫 우승

최종 4라운드서 버디만 7개...박상현 준우승



윤상필이 2024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개막전인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윤상필은 14일 강원도 춘천시 라비에벨 컨트리클럽 올드코스(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만 7개를 잡아내 7언더파 65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66타를 친 윤상필은 2017년 데뷔 이후 첫 KPGA 코리아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윤상필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1, 2, 3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낚은 후 절정의 경기력으로 꾸준하게 타수를 줄여 정상에 올랐다. 3라운드에서 선두에 올랐던 박상현은 마지막 날 2타를 줄이는데 그쳐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마지막 날 5타를 줄인 이정환은 최종합계 13언더파 271타를 기록해 3위에 올랐고, 장유빈은 12언더파 272타로 4위에 자리했다. /뉴스

황선홍호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이 오는 15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호주-요르단전을 시작으로 개막한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B조에 속해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일본과 차례로 붙는다. 한국시각으로 17일 0시30분 UAE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이어 19일 오후 10시 중국과 2차전을, 22일 오후 10시에는 일본과 최종전을 벌인다.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U-23 아시안컵'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올림픽 축구 종목 최종예선을 겸해 진행된다.

한국시각으로 17일 0시30분 UAE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이어 19일 오후 10시 중국과 2차전을, 22일 오후 10시에는 일본과 최종전을 벌인다.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U-23 아시안컵'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올림픽 축구 종목 최종예선을 겸해 진행된다.

한국시각으로 17일 0시30분 UAE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이어 19일 오후 10시 중국과 2차전을, 22일 오후 10시에는 일본과 최종전을 벌인다.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U-23 아시안컵'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올림픽 축구 종목 최종예선을 겸해 진행된다.

한국시각으로 17일 0시30분 UAE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이어 19일 오후 10시 중국과 2차전을, 22일 오후 10시에는 일본과 최종전을 벌인다.

10회 연속 올림픽 도전...UAE·일본과 같은 B조

3위 안에 들면 파리 직행...4위 시 아프리카 팀과 PO



한국 23세 이하(U-23) 대표팀.

/대한축구협회 제공

기니가 4위를 기록해, 아시아팀을 기다리고 있다.

황선홍호의 이번 대회 목표는 최소 3위를 기록해 파리 올림픽 직행을 확정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축구 종목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 예선을 겸한 '2023 U-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는

회를 쓴 한국은 현재 기록을 자체 경신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다면 연속 진출 기록을 '10회'로 연장한다.

마냥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B조에서 라이벌, 북병 등으로 평가받는 일본, 중국, UAE를 만나는 것은 물론, 해외파 진출 불발로 전력

도 온전하지 않다.

양현준(셀틱), 김지수(브렌트포드), 배준호(스토크시티) 등이 소속팀의 반대로 이번 대회에 함께 하지 못한다. 이번 대회는 차출 의무가 없는 탓에 소속팀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각 소속팀에서 주축을 이룬 선수들인 터라 카타르에 오지 못했다.

대체 발탁된 홍시후(인천유나이티드), 김동진(포항스틸러스), 최강민(울산 HD) 등 모두 좋은 실력을 갖춘 자원들이지만, 기존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만큼 황 감독의 머리는 복잡할 전망이다.

또 다른 해외파인 정상빈(미네소타)의 경우 현지 시각으로 1차전 하루 전인 15일야 합류할 예정인 탓에 선수단 전원이 원인으로 움직이기도 힘든 변수가 있다.

아울러 주축 미드필더인 백상훈(FC서울)이 무릎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뒤늦게 합류할 점도 약재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황 감독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반응이었다.

그는 최근 대한축구협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려움 잘 극복하고 반드시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권을 따

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리 올림픽 직행을 정조준했다. /뉴스

순천시청 양궁 남수현, 올림픽 출전

태극마크 달고 7월 개최 2024 파리올림픽 출전



순천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양궁 남수현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오는 7월 26일에 개최될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청 양궁부 남수현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경북 예천 진호국체육공장에서 열린 2024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에서 최종 3위를 차지

하며 파리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냈다.

2005년생으로 순천여고를 졸업하고 올해 순천시청에 입단한 남수현은 양궁의 지역 꿈나무에서 세계 무대로 진출해 실력을 펼칠 기회를 안았다.

/순천=조순익 기자

전남드래곤즈, 장애인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역 장애인 복지증진 위해 여수장애인복지관과 맞손



전남드래곤즈가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권익보장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 문화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

다. 김규홍 전남드래곤즈 사장은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건강을 위해 활동을 할 것이며 전남드래곤즈의 승리를 위해 더욱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Golf 500평 규모 31타석 및 좌타2개타석 보유 예술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골프연습장 선정

QED 골프아카데미 상무점

2022 QED BIG EVENT

LPGA 김효주 QED 공식 엠베서드

회원 등록 전 무료 레슨 체험

카복 플러스 친구 추가 시 골프장 60분 이용권

주니어 골프교실 50% 할인 적용

김넷과 상무점 '해운대 영무호텔' 숙박권 증정

500평 규모, 31개 타석

프라이빗 스튜디오

높이 180cm 대형 허커

사립시설과 사우나 구비

문의전화 062)374-0088 SNS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2F(시청로 122-3, 8999444) 2층

광주 유일 100m 트랙을 소유한 호텔급 피트니스 센터

VIP MEMBERSHIP
광주은행 / 기아자동차 / 영무토건 / 바로연 / 영무파라드호텔 / 신성모터스 밴스 / U탑 유블레스 / 시원병원 / 워더스 웨딩 / 압구정 제이엘의원 / 조선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회원 본인 및 가족 20% 할인

LOCATION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다움 상가 2F, 3F

HOURS
월-금요일 오전6시-오후12시
토-일/공휴일 오전8시-오후8시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휴관

RESERVATION
전 중목 파라드시티 어플을 이용한 예약 시스템 이용
상세 내용은 어플/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Parade City

전국 최대규모 프리미엄 토탈센터

파라드시티

Calorie Bar
Daniele
THE 14DAYS

Fitness

Tennis

Golf